

전남대 교수회·교수평의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전남대학교 교수회·교수평의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

전남대 교수회·교수평의회(의장 한은미 교수)는 10일 공과대학 코스모스에서 전남대 정성택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김재관 신임 교수회장과 조성희 총동장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창립 70주년을 자축했다. 또 리셉션에서는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여온 전남대 교수들의 활약을 담은 기념 영상을 함께 보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회상했다.

전남대 교수회·교수평의회는 개교 다음 해인 1953년 출범한 이래, 엄숙한 시대를 지성과 양식으로 밝히며 대학의 민주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80년 학원 자율화와 교수협의회 시국선언 등 깨어있는 시대의 양심으로 행동했고 군부독재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다 해직을 당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학자치활동과 심의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



하며, 고등교육의 나아가길과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은미 교수회장은 "지난 시간 선배 교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영광스러운 창립

70주년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100년을 이어갈 전남대 교수평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지혜학교와 안전교실 조성 협약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김경례)은 11일 재단 9층 대강의실에서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실 문화조성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광주지혜학교(기숙형 대안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대안학교 교사들에게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상호

지원 ▲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행사 협조 및 홍보 상호지원 ▲양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등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협약을 통해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교육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적십자 광주전남지사·KT&G 장학재단, 응급처치 교육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조성과 청소년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KT&G 장학재단 청소년 안전문화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재난 상황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처치를 하고 사고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기도폐쇄 대응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유빈 기자 lyb54@

동구문화관광재단

광주 관광협회와 업무협약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왼쪽)은 최근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관광협회(회장 선석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세한유치원, 사랑의 열매에 호우피해 성금 전달



광주시 광산구 세한유치원(원장 노인숙)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모은 성금 70만원을 광주사랑의열매(회장 박철홍)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로컬 콘텐츠 페스타 토크콘서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보보보 좋아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불평해도 괜찮아 4(재)	00 가슴이 뚱대(재)	15 꾸러기 식자교실(재) 45 주니토니야(재)	00 애니갤러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UHD 특선 다큐 <슬로 하우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교실3(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주디세이(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보물지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스페이스 동의보감 2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우아한 제국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	00 KBS 뉴스 9	45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00 빈집살래3 수리수리 마을수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국가수사본부 -DIRECTOR'S CUT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0 아이 러브 스포츠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고지식 만담회	1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0 연인 파트1(재)	10 로컬 콘텐츠 페스타 토크콘서트(재) 45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뽕뽕뽕 뽕뽕(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숲이 그린 집	19:00 한국의 둘레길
07:00 시용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9:20 고향민국
07:15 하프와 친구들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9:50 귀하신 몸(재)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재)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엄마 까투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재)	<25일간의 로드 투 브라질 -힐링 로드, 파타티 가는 길>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두근두근, 로망대로 3부 문화재를 샅샅이>
08:50 옹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다큐멘터리K
09:05 최고! 호기심딱지(재)	17:00 페파 피그	22:5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1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타타와 쿠마	
10:30 한국기행(재)	17:25 뽕뽕뽕 뽕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6일(음 7월 1일 丙午)

<p>子</p> <p>36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48년생 세 부적인 점점과 번갈아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60년생 참으로 귀한 이가 매우 소중한 것과 관련지어 주리다. 72년생 상식적인 선에서 강구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84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호기가 주어질 수 있다. 96년생 충분히 무리였다. 행운의 숫자 : 09, 73</p>	<p>午</p> <p>42년생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음이 옳다. 54년생 현학의 국세를 감안하지 않으면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66년생 불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78년생 앞서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되리라. 90년생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02년생 지금은 절대로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어 야 할 지경이다. 행운의 숫자 : 11, 92</p>
<p>丑</p> <p>37년생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문외해 봐야 한다. 49년생 다 지나간 것으로만 여겨왔던 옛일을 문득 삼을 수도 있겠다. 61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만 한다. 73년생 수양을 쌓고 지덕을 닦는다면 길경을 맞이하리라. 85년생 객관적으로 살펴 봐야야 적절한 해답을 얻는다. 97년생 내버려 두도 다 알리지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8, 98</p>	<p>未</p> <p>43년생 굳이 표하지 않아도 모두를 공감하고 있도다. 55년생 소독은 있지만 알찬 결과물은 아니다. 67년생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번잡하고 가혹한 곳에 임하리라. 79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본다. 91년생 자신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03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37, 59</p>
<p>寅</p> <p>38년생 안정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 길목에 서 있다. 50년생 본의 아니게 난처한 처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62년생 서열은 생략하고 한시바베 본론으로 들어가야 옳다. 74년생 근본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외의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98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 행운의 숫자 : 06, 86</p>	<p>申</p> <p>44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56년생 지나치다면 마찰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68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92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판을 주의하라. 04년생 열린 마음으로 이해 발전에 이끈다. 행운의 숫자 : 17, 88</p>
<p>卯</p> <p>39년생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51년생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무방하리라. 6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75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87년생 뻥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99년생 역풍을 안고 있으니 부담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15, 79</p>	<p>酉</p> <p>45년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번득이는 지혜도 솟아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57년생 급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믿고 맡겨도 되느니라. 69년생 차례대로 실행했을 때 더 생산적이라. 81년생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93년생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 05년생 가까스로 반전되어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4, 89</p>
<p>辰</p> <p>40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 52년생 목표를 향해서 발돋움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64년생 마지막에 안타를 치는 이치이다. 76년생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88년생 같은은 순조로움을 부르니 저절로 흥겨운 콧노래가 나올 것이다. 00년생 애매하겠다. 행운의 숫자 : 39, 50</p>	<p>戌</p> <p>34년생 시종일관 관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46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할 만하다. 58년생 골고루 살펴보아야만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70년생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94년생 별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6, 69</p>
<p>巳</p> <p>41년생 궤도난마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53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65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 될 수 있는 일이 생기리라. 77년생 기교가 수익 창출의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89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01년생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안족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51</p>	<p>亥</p> <p>35년생 의도는 훌륭하나 상대방의 반응이 신동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47년생 잘 선택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다. 59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알맞 것이다. 7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메시가 풀리겠다. 83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해야 해결될 것이다. 95년생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9, 52</p>